

# 與 “국힘 청문회, 박범계 규탄대회” vs 野 “증인 채택 거부한 탓”

### 여야, 박 후보자에 질의 전 1시간 입씨름

### 야 “단독 청문회 유감? 오늘 증인 부르자”

여야는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채택과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전날 원외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자체 청문회에 대해 ‘박범계 반대 결의 규탄대회’라고 규정하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여당이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해 실제적 진실을 알리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날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을 다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느라 박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은 1시간여가 지나서야 이뤄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어제 국민의힘이 정식 청문회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셀프 청문회를 하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란 의견을 냈다”면서 “국민들에 박 후보자에 대한 예단을 갖도록 하는 굉장히 잘못된 행태다.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같은날 신동근 의원도 “국민의힘 장외 청문회는 말이 청문회지 사실상 박범계 규탄대회”라면서 “정식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부적격이라고 답을 정했다. 그야말로 ‘답정너 청문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을 한 명도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니 박 후보자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자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게 유감이라면 오늘이라도

김소연 변호사, 이종배 대표를 부르면 깔끔할 일로이다. 여당이 동의해 준다면 그들을 모셔오겠다”라고 맞섰다.

김소연 변호사는 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요구받았으며 박 후보자가 이를 받조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인 바 있다. 이종배 사법시험준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는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박 후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모두 전날 국민의힘 단독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이날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김소연이란 사람은 자기 이해와 요구에 반하면 소송과 의혹을 제기하고 당도 옮기는 그런 분”이라며 신뢰성을 문제 삼아 채택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백 간사도 김 변호사를 거론하며 “법원에서 판결난 사안에 대해 법사위가 증인으로 부른다면 삼권분립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진흥당 청문회를 우리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송기현 민주당 의원도 “이종배 대표는 고발한 사건이 총 58건이나 된다. 이런 사람 말이 신빙성이 있겠느냐”면서 “이런 분이 증인으로 온다 해도 자기 입장에서 말할 수 밖에 없고 증인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거듭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증인 거부에 대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여당이 너무 야박하고 매몰차다”면서 “야당이 증인 신청하면 정치 공세도 여당이 하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거냐”고 따졌다.

이어 “박 후보자가 오늘 선서도 하고 부드럽게 모두 발언을 해서 마음이 약해지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살벌하게 이렇게 하니 마음이 독해지려고 한다”면서 “여당 의원들 박 후보자 싫어하느냐”라고 비꼬기도 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野 서울 후보들, 김종철 성추행에 박원순 소환...“진보 민낯”



김근식(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나경원, 박훈희, 오세훈, 오신환, 이종구, 조은희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장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은 25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과 관련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를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의 대응에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낫다고 평가기도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퇴 소식, 큰 충격이다. 전입 서울시장 성추행에 이어 이번에는 정의당 대표라니. 참담하다”며 “인권과 진보를 외치는 이들의 이중성과 민낯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가 걱정됨과 동시에 국민들께서도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 우려된다”며 “민주당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정의당마저 정의와 멀어지는 모습에 국민의 마음은 더욱 쓰라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나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을 대하는 정의당의 태도와 대응 과정만큼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당 대표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피할 수 없었으며, 신속하게 엄중한 결정을 내렸다”며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낙인찍어 집단적 2차 가해를 저지른 민주당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배달 라이더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그 뉴스를 접하고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일관되고 엄중한 무관용 원칙 적용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 사건 이후에 피

해자가 2차, 3차, 4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 어제 뉴스에 보니 피해자를 살인죄로 고소하겠다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 귀를 의심했다”며 “이런 식의 있어서는 안 되는 분위기가 있는 한 성추행 사건은 빈발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 의식이 생긴다”고 전했다.

조은희 새초구청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오거돈-안희정-김종철-녹색당 사례 등으로부터 이어진, 좌파 지지체, 정당 등 정치권 내 위계 질서에 의한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서울, 부산 보궐선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좌파 권력자들의 위계형 성범죄에 대해 철폐를 내리는 심판이어야 함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전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되풀이 되는 것은 국민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럽다”며 “자기 자신에게 보다 더 엄격해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박영선, 오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낙연 찾아 각오 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중소기업부 장관이 26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시민보고’ 형식의 간담회를 열고 슬로건과 핵심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 측은 25일 “16년간 국회 의정 경험과 1년 9개월 중기부 장관 당시 쌓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디지털시대 글로벌 수도 서울의 미래 100년 계획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서울을 확 탈바꿈할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력과 따뜻한 어머니의 소통 능력을 앞세워 정책 과제들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도 밝힌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이낙연 대표를 면담했다.

박 전 장관은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께서 앞으로 민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을 이번 서울시장 선거 통해서 잘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공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다”며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열심히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표가 지난 주말 우상호 후보와 같이 행보해주시니까 당의 존재감이 훨씬 더 부각되고 네티즌 반응도 좋았던 것 같다는 말을 해주셨다”고 했다. 향후 서울시 관련 정책 발표에 대해선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시민들의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도 들어보고, 함께 토론하는 플랫폼 형식의 토론회의 장을 만들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박영선TV’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된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